월요광장

4·19에서 월남 파병 반대 데모까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4·19혁명 61주년이 지났다. 고등학교 시절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위대한 혁명정신은 대학생 때까지 이어졌다. 그 정신은 민의를 배반한 독재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힘으로 작동했다.

1964년 전남대에서는 '5·27 대통령 하야 요구 데모'가 일어나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5·27은 며칠 뒤의 6·3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불을 당겨 대대적인 시위가 온 나라를 진동시켰다. 신동호 경향신문 기자가 쓴 '오늘의 한국 정치와 6·3세대'라는 책에 그때 일이 자세히 적혀 있다. "전남대 1차 6·3운동은 이홍길 등 5명이 기소되고 박석무·유제린·조병갑·이진규 등 17명이 무기정학, 정동년·김귤근(당시 총학생회장) 등 13명이 ROTC에서 제단 처분 됨으로써 마무리됐다." 이러한 내용이 말해주듯, 이 운동은 학생들의 희생이 큰 상태로 끝이 났다.

1965년 학생운동은 전남대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3·31 데모인데, 특이하게 총학생회가 주동이 되어 공식 조직으로 운동을 했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때 총학생회장은 뒷날 5·18 항쟁의 수괴로 몰렸던 정동년이었다. 이런 과정에는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 "3·31로 정동년은 구속되고, 정동년·전홍준 등 도합 7명이 제적된다."(같은 책, p178) "5·27 하야 데모 여파로 무기정학에서 구속되는 바람에 3·31의 2선에 머물러 있던 박석무의 활약이 시작된다."(같은 책)

그때부터 나는 정동년의 석방 및 제적자 복적 운동을 벌였다. 군대 안 보내기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단식·성토대회·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결과 5월 초 정동년을 제외한 제적생 모두가 무기정학으로 바뀌었다. 특히 정동년은 6월 초 70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가는 조기 방학에 들어가 8월 23일에야 개학하였다.

"박석무 역시 데모 주동자의 신변 관계를 마무리한 뒤 2학기가 개학되자마자 8·23 월남 파병 반대 데모를 주동 학교 생활을 장렬하게 마감하고 만다." 이처럼 민족 모순 문제가 대학가에 정식으로 등장한 파병 반대 데모로 번지기 시작했다. 4·19혁명으로 미국 문제는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군사정권의 철저하고 강고한 반공 논리에 억눌려 미국의 후진국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일은 극히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월남 파병까지 우리나라에 강요하자, 우리는 그 문제만은 입을 닫을 수가 없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반미의 구호가 최초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전남대에서의 8·23 월남 파병 반대 데모였다. "8·23데모는 박석무·전홍준·김동근 3인방의 작품이었다. 대회 공식 명칭은 '한일 국교비준 무효 성토대회'였다. 그러나 이 데모는 '우리들은 월남의 사지에서 양키들의 총알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플래카드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반공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돼 버린다. '북괴 주장과 같은 구호를 걸었다'는 이유였다."(같은 책 p178) 결국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둔갑했다.

"영장 신청, 기각, 재신청, 재기각이 반복된다. 결국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정식 구속된다."(같은 책) 그 당시는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살아 있던 법원이었던 것 같다. 학생들의 데모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반복했다. 검찰보다는 법원이 나은 것이었다.(당시 동아일보에 이 사건이 자세히 보도되었다.)

오래지 않아 석방된 나는 65년 9월 초순 군 입대 영장이 나오자 정동년과 함께 논산행 군용열차에 몸을 싣고 훈련병으로 입소했다. 훈련을 마친 나와 정동년은 강원도 양구의 이웃 사단에 근무하며 주말이면 외출을 나와 함께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새롭다.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날 함께 제대했으니, 정동년과 나와의 인연과 우정은 특별한 관계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렇게 끈끈한 마음과 동지애가 있었다.

이제 8·23 파병 반대 데모 이야기를 끝내자. 민의를 짓밟고 강제로 한일 국교를 체결한 군사독재 정권은 국회 비준까지 강제로 해치웠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을 월남의 사지로 보내 미군의 총알 방패가 되도록 했으니 의기충천하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뜨눈으로 보고만 있었겠는가. 억지 한일회담은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고, 파병도 역사적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파병 반대 데모야 학생운동사에서 민족 모순의 단면을 역사에 노출시켰고 그 후로도 학생운동의 맥락을 이어 주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남대의 대통령 하야 데모와 파병 반대 데모는 학생 데모의 질적 고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데모였음을 알 수 있다.

기 고

산속의 수호천사 '국가지점번호판'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봄이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볕 속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거리 곳곳에는 온갖 꽃 내음이 한창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에 기지개를 켜고 꽃에서 나는 향기로운 내음을 음미해 보기 위해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왔다. 남악 호수 옆으로 이어지는 어진누리길을 따라 오룡산을 오른다. 228m의 낮은 산이지만 영산강이 인접해 있어서 조망이 좋다. 특히 숲도 울창하여 여느 도시 인근의 산 못지않게 제법 괜찮은 산책로다.

상용분기점을 지나 오룡산 정상에 다다르니 숨이 차오른다.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남악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즐기는데, 옆에 낮익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국가지점번호판'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해 보는데 지나가던 등산객이 물어 온다. "이게 뭐다요?"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좌표 체계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는 다소 어설픈 설명을 들은 그 등산객은 사진 한 장을 남기더니 가던 길을 재촉하신다.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의 주소 체계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 번호를 주소로 사용했던 역사적 배경,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편성, 그리고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표현하는 주소이다.

하지만 현재 주소의 부여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길이나 건물이 없는 빈 땅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산악이나 해양 같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설치한 것이 바로 국가지점번호판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를 말한다. 한글 문자 2개와 아라비아숫자 8개를 조합하여 나타내며, 전국을 하나의 좌표 체계로 표현한다. 동시에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위치 표시 체계를 통합했다.

예를 들면 "다라 0519 4817"(오룡산 정상)은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205.19km(다 0519), 북쪽으로 348.17km(라 4817) 지점을 뜻한다. 기준점은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245km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전국을 100km×100km 격자로 나눈 뒤, 그 기준점에서부터 격자마다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각각 가나다순으로 한글 문자를 부여한다. 지점번호 중 앞에 표시된 네 자리 숫자가 동쪽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뒤의 네 자리 숫자는 북쪽 거리를 나타낸다. 구조 요청을 할 때 해당 지점번호판 위치를 119에 알려 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가 가능하다.

우리 도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개수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6650개이다. 매년 등산로나 해안가 등 사고 취약 지역에 200여 개의 지점번호판을 새로 설치하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가고 있다.

화려한 봄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무성한 초록 숲으로,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그리고 하얀 눈꽃으로 변할 것이다. 자연에 심취하는 것만큼이나 등산길 중간중간에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보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떠난 여정에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산속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기 고

농지연금, 땅이 주는 든든한 평생연금

이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장성에서 50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 왔던 이인철(가명) 할아버지는 올해 78번째로 맞이하는 봄이 즐겁기만 하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정월대보름에 돼지고기 한 근 씩을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 드렸다.

할아버지는 지난겨울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 1호인 문전옥답 3000여 평(9920㎡)을 담보로 잡아 돈을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성화를 내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자식들이 차례로 찾아와 여생을 좀 편안히 사시라고 계속 권유를 해 오는 데다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물러도 된다'고 해서 일단 도장을 찍었다.

1월 첫 연금이 입금됐다. 통장을 보고 또 봤다. 205만 원. 2월에도 똑같은 금액이 입금됐다. 그날 할아버지는 할멈과 같이 읍내에 나가 평생 처음 통 큰 쇼핑을 했다. 그동안 늘 마음이 쓰였던 할멈의 전동 스쿠터를 새것으로 바꿔 주고 읍내에서 유명한 음식점에서 외식도 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뒤, 아침에 일어나 마을 앞 논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이인철 할아버지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 농지연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금쪽같은 문전옥답이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지난해 가을에 뿌렸던 보리도 한창 푸르게 자라고 있다.

이번 봄부터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논의 절반만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제일 어린 62살 이장에게 지으라고 내놓을 참이다. 할멈은 일주일에 두 번은 성치 않은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읍내 한의원에 다니겠다고 한다. 농사짓느라 굽은 허리가 펴질리는 만무하지만 이제라도 좀 편히 살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는 주말에 도시에서 애들이 오면 고춧가루, 참기름, 쌀을 주곤 했지만, 매달 농지연금 월급을 받은 뒤로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십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순천에 사는 셋째네가 온단다. 이상은 이인철 할아버지가 농지연금에 가입한 뒤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로 엮어 본 것이다.

100세 시대의 도래로 늘어난 노후의 기간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가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노후 대비 없이 늘어난 수명은 축복이 아니라 악몽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6.5%인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년 후인 2041년에 3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년 뒤 초고령화될 것이라지만 농어촌에선 이미 다가온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기준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로 3명 중 2명은 연금소득이 없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평균 수급액도 26만 원으로 쌈짓돈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다. 2019년 전남도 통계에 따르면 농가 인구의 49.1%가 65세 이상 고령이다. 이처럼 고령농 비율이 높은 농도 전남의 어르신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신들의 노후 대비보다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관성처럼 무엇을 자식들에게 더 줄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자녀 된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모님의 재산 1호인 농토를 농지연금으로 유동화하여 부모님이 그간 못 누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한다. 평생 논에 땀을 흘렸으니 이제 그 보상을 받아도 마땅하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약 83세이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이보다 10년 이상 짧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농지연금으로 받는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 자녀들이 생각을 바꾸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인철 할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효도의 개념을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일궈 온 농토가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좋은 농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을 것이니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아닐까? 시간이 지나서 풍수지탄(風樹之嘆)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의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해 드리자.

社說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위해 끝까지 최선을

보성에 사는 이찬식 씨는 평생 한을 지닌 채 살아왔다. 부친이 여순사건으로 일찍 세상을 뜨면서 그의 운명은 꼬이기 시작했다. 그의 조부는 어디 가서 여순 사건의 '여'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켰다. 그렇게 숨죽이며 살면서도 그는 교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결국 임용되지 못했다. 지금은 없어진 연좌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금 그는 삼베 농사를 지으며 삼베 제품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여순사건으로 70여 년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이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까? 마침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엊그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 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조항을 부칙에 담았고, 희생자에 대한 의료 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의 지급과 위령사업에 평화 등 인권 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법과 구별된다. 사실상 제주 4·3 특별법과 유사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번 소위 통과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조직적인 반대를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70년 한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뢰 없는 금성산 시민 품에 안겨 주어야

국방부가 나주 금성산에 매설된 지뢰 제거를 추진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수십 발이 곳곳에 남아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 있는 지뢰는 집중 호우나 산사태 등에 의해 유실될 위험을 안고 있다.

금성산 일대에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정상의 방공포대 기지 방어를 위해 1853발의 지뢰가 매설됐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민간인 피해 등 대인 지뢰의 위험성이 대두되자, 군 당국은 2006년까지 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성산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의 지뢰 제거 작업을 통해 1770여 발을 수거했다. 하지만 아직도 70여 발이 남아 있다고 한다.

나주시 금성산위원회와 녹색연합 등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후방 지역 지뢰 제거를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해제된 지뢰 지대는 하나도 없다"며 이는 정부가 군에게만 지뢰 문제를 떠맡긴 채 방치한 탓으로 나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뢰 지대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등산로 곳곳의 지뢰 안내판은 떨어져 나뒹굴고 철조망은 끊어져 있으며 표지판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뢰가 집중 호우 시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해결 지침으로 내놓은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기구 설립을 통해 지뢰 제거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피해자 지원까지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나주의 진산 금성산의 안전을 하루빨리 확보해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명동촌

윤동주 시인의 고향은 중국의 북간도 명동촌이다. 증조부 윤재옥 때 함경북도 종성에서 북간도 자동으로 이주했으며 1900년 조부 윤하현이 다시 명동촌으로 옮겼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제 수탈을 피하거나 독립 투쟁을 위해 북간도로 이주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윤하현 장로는 함경도 출신 김약연 등과 명동촌에 터전을 잡았다. 윤동주 부친 윤영석은 명동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인재를 양성했다.

지난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전문지 '시산맥' 회원들과 명동촌으로 문학기행을 간 적이 있다. 허름한 방과 부엌, 손때 묻은 살림살이는 마치 윤동주가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라고 명명된 표지석은 윤동주는 죽어서도 '독립된 조국'의 시인이 아닌 이역만리를 떠도는 '이방인의 시인'으로 다가왔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지방 당국은 명동촌에 99개 객실을 갖춘 숙박 시설을 건립하는 등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옌볜 조선족자치주 룽징 당국은 '중국 조선족 저명 시인'인 윤동주와 관련된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표준어 확대 정책을 위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에 이어 지난해에는 조선족 자치구가 대상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한글 등 소수 민족 언어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한말 독립운동 등을 위해 중국으로 이주했던 조선족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를 일궈 왔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의 기원 등 문화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는 호칭으로 윤동주를 관광에 이용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시정 요구가 필요한 이유다.

윤동주의 아호 '해환'(海煥)은 '바다처럼 빛나게 살라'는 뜻이다. '동방을 밝히기' 위해 명동촌(明東村)에 터전을 잡았던 집안 정신과 궤를 같이한다. '언어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